

선지서 해석

저자: 리차드 프랫 2 세 (Th.D., Harvard)

역자: 이창배 (Ph.D., UCLA)

번역 후원: Ankur Lee-Vakil (Son-in-law)

제 6 강

선지서의 문학적 분석



THIRD MILLENNIUM
MINISTRIES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2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ABOUT THIRD MILLENNIUM MINISTRIES

Founded in 1997,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 Millennium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

선지서 해석

제 6 강 선지서의 문학적 분석

목차(Contents)

I. 서론(Introduction).....	1
II. 역사적 내러티브(Historical Narratives).....	1
A. 내러티브의 유형(Types of Narratives)	2
1. 전기(Biography)	2
2. 자서전(Autobiography)	3
B. 내러티브의 내용(Content of Narratives)	3
1. 선지자의 소명(Prophetic Call)	3
2. 상징적 행위들(Symbolic Actions)	4
3. 환상 보고들(Vision Reports)	5
4. 역사적 배경들(Historical Backgrounds)	6
III. 하나님과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with God)	7
A. 탄식의 기도들(Prayers of Lament)	7
1. 백성의 죄들(Sins of People)	9
2. 심판(Judgment)	10
B. 찬양의 기도들(Prayers of Praise)	11
1. 심판(Judgment)	14
2. 복들(Blessings)	14
IV. 백성과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with People)	16
A. 심판의 선언들(Speeches of Judgment)	16
1. 심판의 신탁들(Judgment Oracles)	16
2. 화의 신탁들(Woe Oracles)	17
3. 소송들(Lawsuits)	18

B. 복의 선언들(Speeches of Blessing)	22
1. 적들의 심판(Judgment of Enemies)	23
2. 복의 신탁들(Oracles of Blessing)	23
C. 혼합된 선언들(Mixed Speeches)	24
1. 심판-구원의 신탁들(Judgment-Salvation Oracles)	24
2. 회개의 촉구(Call to Repentance)	25
3. 전쟁에로의 부름(Call to War)	25
4. 예언적 논쟁(Prophetic Disputation)	25
5. 비유들(Parables)	26

V. 결론(Conclusion) 26

선지서 해석(He Gave Us Prophets)

제 6 강 선지서의 문학적 분석(Literary Analysis of Prophecy)

I. 서론(INTRODUCTION)

일년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읽으려고 애쓰는 나의 친구들이 여럿 있다. 그런데 종종 이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 “리차드, 내가 구약의 선지서를 읽기 시작할 때 나는 크고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 드네.”라고 말한다. 이런 일은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 우리는 선지서를 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곧바로 구약의 선지서의 지형에 아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선지서의 지형에 익숙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제목은 “선지서의 문학적 분석”이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 줄곧 만나는 세 가지 종류의 문학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첫째 종류는 선지자들의 생애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한 이야기, 곧 역사적 내러티브이다. 둘째 종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들과 찬양들을 기록한 단락들, 곧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다. 셋째 종류는 선지자들이 그들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말한 선언들, 곧 백성과의 의사소통이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문학이 선지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마치 선지서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보물들로 인도할 지도를 얻은 것과 같다.

II. 역사적 내러티브(HISTORICAL NARRATIVES)

모두가 좋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고 영화를 보러 간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 이상의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또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때때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성경에 관하여 생각할 때 성경 안에 많은 이야기(곧 내러티브)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대개 우리는 내러티브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와 같은 책들에만 주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구약의 선지서에도 많은 내러티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역사적 내러티브는 구약의 여러 선지서의 지형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 목록의 맨 위에 요나서가 있다. 요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와 그의 니느웨성에 대한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다니엘서의 많은 부분도 역사적 내러티브이다. 다니엘의 환상들과 예언들은 역사적 사건의 맥락 안에서 설정된다. 이 외에도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와 같은 선지서의 많은 장들이 내러티브로 되어 있다. 분량은 좀 더 작지만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와 이사야서와 같은 선지서에도 내러티브가 여기 저기 흩어져 나온다. 선지서를 연구할 때 우리는 이런 역사적 내러티브들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그것들은 많은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선지서에서 역사적 내러티브가 담당하는 역할을 탐구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가 만나는 내러티브의 유형을 살필 것이다. 둘째로, 이 내러티브들의 내용을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우리가 선지서에서 만나는 내러티브의 유형을 살펴보자.

A. 내러티브의 유형(TYPES OF NARRATIVES)

구약의 선지서에는 내러티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유형인 전기와 자서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용어들이 보통 암시하는 것처럼, 전기는 삼인칭 관점의 이야기이고, 자서전은 일인칭 관점의 이야기이다.

1. 전기(Biography)

어떤 경우에는 전기적 설명과 자서전적 설명이 같은 책에 동시에 나온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의 처음 여섯 장은 삼인칭 전기적 관점에서 다니엘의 생애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전한다. 다니엘서 1 장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받은 훈련에 대하여 듣는다. 다니엘서 2 장에서 우리는 거대한 신상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에 대하여 듣는다. 다니엘서 3 장은 그 유명한 풀무불 이야기이다. 다니엘서 4 장은 나무에 관한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을 전한다. 다니엘서 5 장은 벨사살이 사람의 손가락이 벽에 글을 쓰는 것을 본 유명한 이야기를 전한다. 다니엘서 6 장은 사자 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이다. 이 모든 장들은 전기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것들은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에 관한 삼인칭 내러티브를 이루고 있다.

2. 자서전(Autobiography)

다니엘서 1-6 장은 전기이지만, 다니엘서 7-12 장은 자서전으로 전환된다. 각 장마다 짧은 서론으로 시작하지만 지형은 일인칭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니엘 자신이 자신의 말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고 있다. 다니엘서 7 장은 네 짐승에 대한 꿈에 관한 다니엘 자신의 설명을 전한다. 다니엘서 8 장은 양과 염소에 대한 그의 환상에 관하여 말한다. 다니엘서 9 장은 포로민들이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자서전적 설명을 담고 있다. 다니엘서 10-12 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에 관한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자서전적 기록에 해당한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를 연구하면서 많은 전기와 많은 자서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접할 때 항상 이 장르들을 의식해야 한다. 구약의 저자들은 그들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내러티브 형식으로 글을 썼다. 우리가 이런 장르들을 놓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한 중요한 메시지도 놓칠 것이다.

역사적 내러티브들이 선지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해야 할 차례가 되었다. 이 내러티브들의 기본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B. 내러티브의 내용(CONTENT OF NARRATIVES)

선지서 전반에 걸쳐 우리는 내러티브들이 네 가지 기본적인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발견한다. 첫째는 선지자의 소명이고, 둘째는 상징적 행위들이고, 셋째는 환상의 보고들이고, 넷째는 역사적 배경들이다.

1. 선지자의 소명(Prophetic Call)

선지자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분을 대신하여 말하도록 위임하신 때에 관한 보고이다. 이런 종류의 기록은 여러 주요 구절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이사야 6 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을 전한다. 예레미야 1 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레미야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언약을 대리하게 하셨는지 알려준다. 이와 비슷하게 에스겔 2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게 한 것을 듣는다. 이 각 단락에서 우리는 이야기, 곧 내러티브를 발견한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는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에 권위를 부여하신 것을 확신했는지 알게 된다.

선지자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선지자들을 부르셨음을 확증하거나 입증하기 위한 의도로 기록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주 매우 인기가 없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쉽지 않은 것들을 말해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이 소명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도록 이 사람들을 부르셨음을 확증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좋아하지 않거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듣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 상징적 행위들(Symbolic Actions)

선지서에 나오는 역사적 내러티브는 선지자들의 상징적 행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대변자들에게 그들의 사역에 대한 상징적인 가치를 갖는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하셨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13 장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브라데로 가서 그의 베 띠를 썩을 때까지 물어두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것은 유다의 부패를 예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레미야 19 장에서 예레미야는 옹기 하나를 사서 장로들 앞에서 깨뜨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것은 유다에게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상징이었다. 예레미야 32 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고 매매 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지시하셨다. 이것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그들에게 확신시키는 증표였다.

예레미야서의 이러한 예들은 선지서에 나오는 많은 상징적 행위들 중 몇 가지에 불과하다. 호세아서와 에스겔서와 같은 책들은 이러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런 기록들을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

3. 환상의 보고들(Vision Reports)

선지자의 소명과 상징적 행위에 대한 기록 외에도, 우리는 선지서에서 환상의 보고라는 세 번째 종류의 역사적 내러티브를 만난다. 환상의 보고란 선지자들이 육안으로 하나님과 마주친 것을 묘사하는 단락을 말한다.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일련의 환상 보고들이 암 7:1-9 에 나온다. 이 단락은 실제로 세 가지 환상에 대한 보고이다. 첫째로, 암 7:1-3 에서 여호와께서는 아모스에게 북 이스라엘을 곧 멸망시킬 메뚜기 떼를 보여주시지만 아모스는 이 환상에 대한 반응을 보이며 암 7:2 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암 7:2 개역개정)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아모스는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조차도 그렇게 끔찍한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지 못할 것을 염려했다. 그래서 암 7:3 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며 메뚜기들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이와 매우 흡사하게 암 7:4-6 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가 북 이스라엘 땅을 삼킬 불인 가뭄을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을 보도록 허락하신다. 아모스는 다시 반응하며 암 7:5 에서 다음과 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암 7:5 개역개정)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다시 한 번 암 7:6 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

그런 다음 암 7:7-9 에 세 번째 환상이 보고된다. 이번에는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담 곁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그것이 비뚤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헐어버릴 필요가 있는지 알아보시기 위해 담을 측량하고 계셨다. 이 다림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개개인을 재판하시어 그분께 반역한 사람들만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상징했다. 아모스는 이 환상에 대하여 아무런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의로운 남은 자가 발견되고 살아남을 것임을 알았다.

선지서는 이와 같은 환상의 보고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은 에스겔 1 장을 기억할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수레 보좌를 볼 수 있다.

여러분은 또한 선지자 다니엘의 여러 환상들도 기억할 것이다. 선지서의 환상 보고는 선지자들의 말이 하늘 보좌로부터 유래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4. 역사적 배경들(Historical Backgrounds)

선지자의 소명, 상징적 행위, 환상의 보고 외에도, 선지서의 많은 역사적 설명은 또한 우리에게 역사적 배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종류의 내러티브는 선지서 전반에 걸쳐서 여기저기 흩어져 나온다. 역사적 배경에 초점을 맞춘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예가 이사야 7-8 장에 나온다. 이 두 장은 잘 알려진 예언의 말씀인 사 7:14 이 나오는 역사적 맥락을 제공한다. 사 7:14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사 7:14 개역개정)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은 자주 사 7:14 을 둘러싸고 있는 내러티브 곧 이사야 7-8 장의 내러티브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두 장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한다.

사 7:1-2 에서 우리는 이사야가 아하스 왕이 아람과 북 이스라엘의 위협에 잔뜩 겁먹은 때 왕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람과 북 이스라엘은 아하스 왕이 앗수르 제국에 대항하는 그들의 동맹에 합류하길 원했다. 그래서 사 7:3-11 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경고를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이 나라들 중 어느 하나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구원을 위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사 7:12 에 의하면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사 7:13-8:12 에 나오는 내러티브는 어떻게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꾸짖고 하나님께서 앗수르 제국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이 역사적 내러티브는 이 단락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들에 대한 맥락, 곧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안에 이사야의 예언들을 놓을 때만, 우리는 그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바랄 수 있다.

구약의 선지서를 읽으며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소명 내러티브를 다루고 있는가?

우리는 상징적 행위들에 관한 보고를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환상의 보고를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예언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는 내러티브를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감추인 채로 남아 있을 단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선지서의 문학적 분석을 다루는 이번 강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선지자들이 그들의 책에 역사적 내러티브를 포함시킨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선지서에서 발견되는 자료의 두 번째 주요 유형인 선지자들의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보자.

III. 하나님과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WITH GOD)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남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기도로 충만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들이 그들의 성경을 사랑했고 그들의 성경으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기자들)이 주님께 기도드렸던 방식을 따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전 범위를 망라해서 상상해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도가 선지서에서 발견된다.

논의의 평이함을 위해서 우리는 선지서에서 발견되는 기도들의 스펙트럼의 양쪽 끝을 지적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탄식의 기도들에 대하여 말하고, 그 다음으로 찬양의 기도들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전 범위의 슬픔과 기쁨을 토로했다. 그럼 먼저 선지자들이 탄식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자.

A. 탄식의 기도들(PRAYERS OF LAMENT)

불행하게도 오늘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탄식시(혹은 애가)라고 부르는 기도의 유형에 익숙하지 않다. 탄식의 기도는 주님께 실망과 슬픔과 혼란을 토로하는 기도이다. 우리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종류의 기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해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선지자들은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혼란, 실망,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했다.¹ 탄식의 기도들은 선지서 전반에 걸쳐 나온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하박국서는 특히 광범위한 탄식의 기도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런 종류의 기도들은 다른 많은 선지서에도 나온다. 사실상 학개서는 적어도 탄식의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절이 없는 유일한

¹ [역자 주] 탄식시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탄식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호소하거나 진술한 상황을 아뢰는 것으로 시작한다(vocative opening).
2. 탄식시의 핵심은 하나님의 부재를 체험하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과 자신과 원수들에 대하여 탄식하고 불평하는 부분이다(lament proper = complaint against God[thou]-I/We-Foes[he/they]). 탄식과 불평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의 극한 상황을 묘사하고, 원수를 고발하고 원수를 저주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부재를 탄식하는 것이다.
3. 불평 이후에 탄식의 세 대상과 관련된 자세한 간구(petition)가 나오는데 요약하면 “들으소서-구하소서-벌주소서(Hear!-Save!-Punish!)”이다.
4. 탄식과 간구에 이어서 슬픈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보여주는 역접의 바브(vav adversative)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confession of trust)과 기도 응답의 확신(assurance of being heard) 그리고 찬양의 약속 등의 기쁜 분위기로 끝난다.

예: 시 54

- 54:1 Invocation of God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 54:2 Petition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 54:3 Complaint **낮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 54:4 Expression of trust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 54:5 Call for vengeance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 54:6 Vow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 54:7 Exclamation of praise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선지서이다. 선지서에서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빈도는 이것이 선지자들의 사역의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었을 암시한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서 최악의 시기를 맞았기 때문에 탄식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 그들의 관심사를 보여드렸다. 구약의 선지서 안에 탄식의 기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구하기 위해 선지자들이 보통 두 가지 주제에 관하여 탄식했음을 인식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첫째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이었고, 둘째 주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선지자들이 드린 탄식의 기도에 나오는 이 두 가지 관심사를 예시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박국서에 들어 있는 탄식의 기도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하박국은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인한 위기 직전에 사역을 시작해서 그 위기 동안 내내 사역했다. 그러므로 하박국은 두 가지 큰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한편으로 합 1:2-4 에서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방식에 대하여 탄식했다. 그리고 1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략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에 대하여 탄식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박국의 탄식을 살펴보자.

1. 백성의 죄들(Sins of People)

하박국은 그의 책의 서두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합 1:2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합 1:2 개역개정)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도덕적 상황에 대한 그의 기도들을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몹시 괴로워했다. 다른 많은 선지자들처럼 하박국은 특히 땅에 만연한 불의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합 1:4 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합 1:4 개역개정)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급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심판으로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을 괴로워했다. 그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하박국서 서두의 이런 기도는 선지자들이 주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핵심적인 방식 중의 하나를 예시한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통과 고난을 보며 스스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탄식하며 부르짖을 것을 촉구했다.

우리가 보았듯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유다 백성의 죄를 징벌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하박국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는 합 1:5-11 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악한 자들을 곧 처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알게 된다. 합 1:6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합 1:6 개역개정)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은 유다에서 불의를 자행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것을 지키셨고 언약 심판을 위해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유다를 정복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다.

2. 심판(Judgment)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자마자, 하박국은 그 상황을 다시 살피며 선지서들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주요한 탄식의 기도, 곧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탄식의 기도를 드렸다. 하박국이 바벨론 사람들 아래서 당할 유다의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기도드렸는지 들어보라. 합 1:13 에서 하박국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합 1:13 개역개정)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지은 것을 알았지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의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외국 압제자들 아래서 당할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며 하박국은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합 2:2-20 에 기록된 대로 언젠가는 바벨론 사람들의 지나친 압제에 대하여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다. 예를 들면, 합 2:8 에서 우리는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합 2:8)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었도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에 대한 하박국의 탄식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확인하셨다.

선지서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이 자신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 주님 앞에 탄식의 기도들을 드린 것을 발견한다. 우리는 때때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원수들이 멸망할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이방 나라들에 대한 탄식의 기도를 드린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들은 백성에게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이런 짐들을 주님께 아뢰었다.

탄식의 기도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의사 소통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선지서들에 나오는 두 번째 주요한 유형의 기도,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기도를 다룰 것이다.

B. 찬양의 기도들(PRAISERS OF PRAISE)

시편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많은 예가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 또한 주님께 말씀드릴 때 이러한 형식의 표현을 사용했다.² 일반적으로

² [역자 주] 베스터만(Claus Westerman,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John Knox, 1981), 31-32)은 하나님께 2 인칭 혹은 3 인칭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송은 간구(petition)와 찬양(praise)이란 양극에 의해 지배되므로 시편의 시들을 탄식시(psalms of petition = laments)와 찬양시(psalms of praise)로 대별하며 감사사와 찬양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찬양시의 범주에 함께 넣는다. 감사사는 히브리어 동사 [호다]와 관련이 있고 찬양시는 히브리어 동사 [히렐]과 관련이 있다. 감사시(thanksgiving psalms = songs of thanksgiving)는 탄식하며 간구하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선언적/고백적 찬양시(declarative/confessional praises)이다. 찬양시(psalms of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의 큰 복들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³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선한 일들을 보았을 때 찬양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곤 했다.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많은 선지서에 나온다. 그것은

praise)는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선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행위(창조와 구속과 섭리와 심판)에 대한 묘사적/서술적/진술적 찬양시(descriptive praises)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이다.

³ [역자 주] 감사시(선언적 찬양시, 고백적 찬양시, 특수 찬양시)의 핵심요소

1) 전형적인 감사시인 시편 30 편에서 보듯이 감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서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간증하고(본론: 핵심 "I cried! → He heard! → He drew me out!"), 계속 찬양을 드리겠다는 맹세나 회종을 찬양으로 초대하는 것으로 끝난다(결론). 이렇게 감사시는 서론-본론-결론의 3 중 구조를 갖는다.

2) 시편 30 편이 보여주는 감사시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① Proclamation with Introductory summary: 1ab [감사/찬양의 의도 선언과 동기]

② Report of deliverance 1: 2-3 [구원의 간증 1: 감사시의 핵심 요소이고 "I cried-He heard-He drew me out."으로 요약되는 내용을 갖는다. 시 30 편에서 "He heard."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암시되어 있다.] [요약 간증: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심]

I Cried [2]

He Drew me out [2-3ab]

③ Praise: [찬양으로의 초대와 그 이유] 4-5

④ Report of deliverance 2: 6-7, 8-11 [구원 간증 2: 감사시의 핵심 요소이고 (환난의 때를 회고하며) "I cried-He heard-He drew me out."으로 요약되는 내용을 갖는다. 시 30 편에서 "He heard."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암시되어 있다.] [구체적 간증: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심]

- Looking back at the time of need: 6-7 [환난의 때 회고]

- Report of deliverance [I cried-(He heard)-He drew me out]: 8-11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심]

I Cried [8-10]

He Drew me out[11]

⑤ (renewed) vow of praise: 12 [새로운 감사/찬양의 약속]

⁴ [역자 주] 찬양시(묘사적 찬양시, 서술적 찬양시, 진술적 찬양시)의 핵심 요소

선지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우리는 하박국서의 끝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설명함으로써 하박국서를 살피는 일을 마무리지으려고 한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하박국서의 대부분은 주로 선지자의 탄식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다룬다. 그러나 하박국서의 마지막 장은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뀐다.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혹하게 다룬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하박국은 주님께 놀라운 찬양을 드린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찬양을 하박국서 안에서 발견하는가? 선지서들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 찬양드릴 때 두 가지 주제가 전면에서 등장한다. 선지자들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복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한다. 우리가 하박국 3 장을 보면 하박국도 이러한 패턴을 따른 것을 알 수 있다.

1) 핵심 요소

① 찬양에로의 초대

- Call to praise [imperative 2mp $\text{הַלְלוּ} / \text{זַמְּרוּ} / \text{שִׁירוּ}$]

② 핵심: 찬양할 이유 ([키])

- Reason for praise [praise proper; causative conjunction כִּי + participles]: 하나님의 두 측면 즉 위대하심(גְּדֻלָּתוֹ ; greatness; majesty/might)과 선하심(טוֹבוֹ ; goodness)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인다.

③ 새로운 찬양에로의 초대

- Renewed/Further Call to praise [imperative 2mp]

2) 예: 시 117

- [1] Call to praise God
1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할지어다
- [2] Grounds for praise
2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2] Renewed call to praise
2 할렐루야

1. 심판(Judgment)

합 3:11-12 에서 하박국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합 3:11-12 개역개정)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이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발하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가 열국을 치시고 심판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것을 본다.

심판에 대한 찬양이라는 이 주제는 선지서의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사 40:22-23 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주님을 찬양한다.

(사 40:22-23 개역개정)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 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 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우리가 그분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에 이르면 자주 매우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지상에서 그분의 복으로 인해서만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지자들은 이 현실을 이해하고 그분의 심판으로 인해 주님께 찬양을 드렸다.

2. 복들(Blessings)

이러한 심판과 복의 상호 연관성으로 인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지자들의 찬양의 두 번째 초점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선지자들은 그분의 심판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에게 베푸신 많은 복들로 인해 자주 주님을 찬양했다. 예를 들면, 선지자 하박국은 심판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언급했다. 합 3:12-13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합 3:12-13 개역개정) 주께서 노를 발하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엔젠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다윗의 집을 회복하실 것을 보았다. 하박국은 이러한 일들을 보고 그분의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와 매우 흡사하게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찬양하시는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인다.

(사 44:24) 모태에서 너를 지은 네 구속자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만물을 지었고, 홀로 하늘을
펼쳤고,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그리고 사 44:26 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계속 인용하는 말씀은 다음과 같다.

(사 44:26) [24 나는 여호와라] . . . 26 나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고 말하고,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 황폐한 곳들에 대하여는 “내가
그것들을 복구시키리라”고 말한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슬픔과 탄식의 기도뿐만 아니라 감격에 벅찬 큰 찬양을
드렸다. 원래의 독자들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들 또한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것이다. 선지자들이 주님께 그분의 복들과 심판들로
인해 찬양드리는 것을 들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이번 강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선지서가 역사적 내러티브와
선지자들의 하나님과의 의사 소통을 담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주요 문학 범주, 곧 선지자들의
백성과의 의사 소통을 살펴볼 것이다.

IV. 백성과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WITH PEOPLE)

선지서 안에 역사적 이야기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들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이 장르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신 주된 목적을 다루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그분의 사절로 부르시고 왕들과 유형적 언약 공동체의 백성에게 말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의 대부분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전하도록 하신 메시지들이다. 이제 우리는 선지서에 나오는 이런 종류의 장르를 다룰 것이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백성과의 의사 소통을 세 가지 부분, 곧 심판의 선언, 복의 선언, 그리고 심판과 복이 섞여진 선언으로 나눌 것이다. 그럼 먼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언약 백성에게 심판의 말을 선언한 몇 가지 방식을 살펴보자.

A. 심판의 선언들(SPEECHES OF JUDGMENT)

최근 수십 년 동안 선지서들과 다른 문화의 문헌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일반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형적인 형식이나 패턴을 따라 그들의 말들을 전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설의 패턴은 융통성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여러 상황에 맞게 고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세 가지 주요한 유형의 연설이 언약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사용되었다. 그것들은 심판의 신탁, 화의 신탁, 그리고 소송이다. 그럼 먼저 심판의 신탁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심판의 신탁들(Judgment Oracles)

심판의 신탁은 구약의 선지서들에 나오는 가장 간단한 유형의 선언이다. 전형적인 심판의 신탁은 두 가지 주요한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 첫째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들을 환기시키는 고소가 있다. 둘째로, 선고가 있는데 이 선고를 통해 선지자는 백성이 그들의 죄 때문에 어떤 종류의 언약의 저주를 경험할 것인지 선언한다. 때때로 이 두 구성 요소는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이 둘의 순서를 번갈아 사용하기도 한다. 때때로 심판의 신탁은 고소만 갖거나 선고만 갖도록 축약될 수 있다. 그러나 대개 선지자들은 고소와 선고라는 이 기본적인 이중 패턴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암 4:1-3 에서 선지자 아모스는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의 신탁을 전했다. 그는 사마리아의 부유하고 탐욕스러운 여인들에 대한 고소로 시작한다. 암 4:1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암 4:1 개역개정)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아모스가 사마리아의 여인들이 북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을 괴롭힌 것에 대하여 고소하는 것을 본다. 그 여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그저 남편들에게 그들의 탐욕스러운 욕망을 채워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다.

심판의 신탁에 흔히 쓰이는 방식을 따라 암 4:2-3 은 이 언약의 의무들을 어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를 선언하는 데로 나아간다. 암 4:2-3 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보라.

(암 4:2-3 개역개정)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 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아모스는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이 부유한 여인들이 국외로 추방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2. 화의 신탁들(Woe Oracles)

심판의 신탁 외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주 언약의 저주를 화의 신탁으로 알려진 패턴을 따라 선언했다. 화의 신탁이 심판의 신탁과 매우 비슷한 것은 일반적으로 고소가 있고 이어서 선고가 따라 나오는 점이다. 화의 신탁이 갖는 중요한 특징은 그것들이 맨 처음에 화의 표현[호이, "Woe to . . . 화 있을진저"]에 의해 도입되는 것이다.

화의 신탁에 대한 한 가지 예는 사 5:8-10 에 나온다. 거기서 선지자는 백성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땅을 사버림으로써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빼앗았다고 선언한다. 화의 표현은 이사야가 사 5:8 의 서두에 “(—한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한 것에 나타난다. 이사야가 말하려고 한 것은 반가운 복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였다. 사 5:8 에서 그의 신탁의 고소는 다음과 같이 화의 표현을 뒤따르고 있다.

(사 5:8)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각 가정이 영원한 기업의 안전성을 가지도록 규정하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에 부유한 유다 사람들은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땅을 구입함으로써 이 언약의 규정을 위반했다. 그래서 사 5:9-10 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언약 위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선고를 내린다.

(사 5:9-10 개역개정)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녕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예언의 경우에서처럼 형벌이 범죄에 적합하다는 것을 본다. 부자들이 땅을 사서 모음으로써 경제적 유익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노력이 헛되게 하실 것이었다. 이와 같은 화의 신탁은 선지서 전반에 걸쳐 나온다.

3. 소송들(Lawsuits)

심판의 신탁과 화의 신탁 외에도, 선지자들은 또한 소송의 형식으로 언약의 저주들을 선언하기도 했다. 히브리어 단어 **גָּרַב**[리브]는 자주 이 형식의 선언과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리브]라는 용어는 “다투다” 혹은 “겨루다”를 의미하지만, 선지서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법적인 다툼을 나타냈다. 그것은 크신 임금님이신 여호와의 하늘 법정에서 일어난 법적인 행위, 곧 소송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였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들은 자주 하늘의 환상, 곧 하나님의 천상 보좌의 환상을 보았다. 여러 번 하나님의 보좌는 법정으로 보였고, 그 결과로 법적인 용어들이 나온다. 하나님은 검사 겸 판사로 여겨진다. 증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기 위해 소환되고, 그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 고소된 피고들이다. 일반적으로 선지서 안에서 완벽한 소송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여러 번 우리는 소위 수정된 소송들을 본다. 소송([리브])은 많은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법정 장면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법정에서의 소환이 있다. 증인들의 신원이 확인된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피고인들에게 얼마나 큰 호의를 베푸셨는지 회고하시고, 때때로 선지자 자신에 의해 어떤 종류의 반응이 주어진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고소가 선고와 함께 뒤따른다.⁵

⁵ [역자 주] Niehaus, "Amos" in ed. T. McComiskey, *Minor Prophets* vol. 1, 319-320.

Covenant	Covenant Lawsuit	Lawsuit: Deut 32
Witnesses	Summons to witnesses	32:1-2
Title	God's attributes	32:3-4
Historical Prologue	Historical Review	32:5-14
Stipulations	Indictment	32:15-18
Curses	Judgment	32:19-29
Blessings	Assurance of Salvation	32:30-38
Oath	Oath	32:39-42

1) 암 1:3-5

introduction of plaintiff/judge (1:3a): 암 1: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introduction of defendant (1:3a): 다메섹의

indictment (1:3b):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judgment (1:4-5): 4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5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벵에던에서
홀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 암 3:1-15

introduction of plaintiff and judge (3:1a): 암 3:1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는 이 말씀을 들으라

introduction of defendant (3:1b):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indictment (3:2): 2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confirmation of covenant-lawsuit messenger (3:3-8)

3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4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5 창애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애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6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8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summons to witnesses (3:9a): 9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하라

indictment (3:9b-10):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10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judgment (3:11-15)

11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1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13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14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벤엘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15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아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송 전체의 가장 좋은 예가 미 6:1-16 에 나온다. 미 6:1 에서 우리는 법정 소환을 듣는다. 미 6:1 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라.

(미 6:1 개역개정)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 다음 미 6:2 에서 증인들 자신들이 언급된다.

3) 암 5:18-27

introduction of defendant (5:18a)

암 5:18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introduction of judge (5:18a)

암 5:18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judgment warning (5:18b-20)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19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꿈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20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indictment (5:21-23)

21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2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call to repentance (5:24)

24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도

indictment (5:25-26)

25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26 너희가 너희 왕 식긔와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judgment (5:27)

27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미 6:2 개역개정)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와 변론을 들으라

증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그분의 호의를 상기시키신다. 미 6:3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미 6:3) 내 백성이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 때 미가 선지자는 그 백성을 대신하여 말하며 하나님의 질문에 겸손하게 미 6:6-8 에 기록된 대로 반응한다. 그는 미 6:6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 6:6)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리고 나서 미가는 백성의 죄를 인정하며 미 6:8 에서 이렇게 결론짓는다.

(미 6:8) 사람아 그분께서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이미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미가 선지자의 반응 다음으로, 우리는 미 6:10-12 에서 고소를 발견하고 미 6:13-16 에서 선고를 발견한다. 선지서에서 이 단락과 비슷한 소송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고소하신 다음 심판으로 그들을 위협하시는 방식들 중의 하나로 나온다.

B. 복의 선언들(SPEECHES OF BLESSING)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만을 선언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베푸실 것도 선언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실 복을 선언하는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한편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에 대한 심판들을 선언하곤 했다. 다른 한편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복을 선언하곤 했다. 그럼 먼저 적들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이 되는지 살펴보자.

1. 적들의 심판(Judgment of Enemies)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큰 선물과 복을 선언하신 방법들 중의 하나는 선지자들이 이 적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 결과로 우리는 선지서 전반에 걸쳐서 이방 나라 적들을 직접 겨냥한 심판의 신탁들, 화의 신탁들, 소송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나 3:1 에서 우리는 니스웨에 관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나 3:1 개역개정)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신탁들, 화의 신탁들, 소송들은 이중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이스라엘에게 확신시켜 주는 적극적인 목적도 갖고 있었다.

2. 복의 신탁들(Oracles of Blessing)

적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 외에도, 선지자들은 또한 복의 신탁들을 선언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말도 전했다. 복의 선언들은 형식에 있어서 매우 융통성이 있고 매우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패턴이 여러 번 나타난다. 먼저 어떤 도입적인 말이 나오고, 다음으로 뒤따라올 복에 대한 어떤 이유가 주어진다. 그리고 나서 신탁들은 자주 그 복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한다. 예를 들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렘 35:18-19 에서 레갑 족속을 위한 복을 선언했다. 우리는 렘 35:18 의 첫째 부분에서 이 신탁의 도입부를 볼 수 있다.

(렘 35:18a)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

이 도입적 공식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는 이유가 나온다. 우리는 렘 35:18 의 둘째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 있다.

(렘 35:18b)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렘 35:19 에 복의 선언이 나온다.

(렘 35:19)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잘 알려진 또 다른 복의 신탁이 렘 31:31-34 에 나온다. 먼저 렘 31:31-33 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시는 것이 나온다. 렘 31:31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 있다.

(렘 31:3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본토로 돌아와 회복될 때에 임할 새 언약의 복을 선언했다. 그리고 렘 31:34 에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베푸시는 이유가 나온다.

(렘 31:34)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C. 혼합된 선언들(MIXED SPEECHES)

지금까지 우리는 선지서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다루는 전형적인 선언들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선지서에서 혼합된 선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여러 번 발견한다. 이 혼합된 선언들은 다양한 형식으로 나오므로, 우리는 그것들 중 몇 가지만 다루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혼합된 선언들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모두 가리킬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1. 심판-구원의 신탁들(Judgment-Salvation Oracles)

첫째로, 우리는 같은 선언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경고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복이 주어지는 심판-구원의 신탁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사 57:14-21 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의인들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 혼합되어 있는 선언의 좋은 예이다.

2. 회개의 촉구(Call to Repentance)

게다가,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할 복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회개의 촉구에 대한 한 예는 사 55:6-13 에서 볼 수 있다. 거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촉구한다.

3. 전쟁에로의 부름(Call to War)

다른 경우에 선지자들은 청중들을 전쟁에로 부른다. 다시 한번, 이 부름은 승리 혹은 패배에 대한 부름일 수 있기 때문에 혼합적이다. 예를 들면, 호 5:8-11 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공격받을 것을 대비할 전쟁에로의 부름을 볼 수 있다.

4. 예언적 논쟁들(Prophetic Disputation)

혼합된 선언들의 또 다른 예는 선지자들의 논쟁이다.⁶ 선지자들은 다른 선지자들과 논쟁이나 언쟁을 하였다. 예를 들면, 미 2:6-11 에서 선지자 미가는

⁶ [역자 주] 말라기는 표제(1:1)—6 개의 논쟁(1:2-4:3 [MT 1:2-3:21])—부록(4:4-6 [MT 3:22-24])으로 되어 있다. 책 전체가 논쟁적/문답적 형식(disputational/catechetical format)을 띄고 있는 것은 말라기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6 개의 논쟁은 (1)1:2-5; (2)1:6-2:9; (3)2:10-16; (4)2:17-3:5; (5)3:6-12; (6)3:13-4:3 [MT 3:13-22]으로 구분된다. 다른 선지서들은 일반적으로 대변자 공식(messenger formula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음에 신탁(oracle)을 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말라기처럼 책 전체는 아니더라도 논쟁적 형식을 띤 선지서의 부분들에는 사 40:27-28; 렘 2:23-25, 29-32; 29:24-32; 겔 12:21-28; 미 2:6-11 등이 있다. 논쟁 형식의 효과는 반대자로 하여금 더 이상 제시할 이견을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Stuart(1248)는 논쟁(disputation, rhetorical disputation)의 네 가지 요소를 사실의 진술(assertion)—반문(question by Israel)—대답(response)—함축적 의미 제시(implication)라고 설명했다. Hill & Walton(548)은 (1)사실의 진술(the statement of a truth), (2)질문 형식으로 된 청중의 가상적 반박(a hypothetical audience rebuttal in the form of a question), (3)그의 처음 전제를 재진술함으로써 반박에 대한 선지자의 응답(the prophet's answer to the rebuttal by restating his initial premise), (4)지지 근거의 추가적 제시(the presentation of additional supporting evidence)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논쟁의 요소를 말 1:2-5 를 예를 들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에 의한) 사실 진술: (1:2 상)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2. (이스라엘에 의한) 반문: (1:2 중)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거짓 선지자들의 견해들을 반박했다. 논쟁들은 다가올 복이나 심판을 선언한다.

5. 비유들(Parables)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은 비유라는 장르를 써서 혼합된 메시지를 선언했다. 비유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긍정적인 선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정적인 선언일 수도 있다. 사 5:1-7 은 선지서에 나오는 비유의 아주 좋은 예이다. 거기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했다.

선지서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종류의 혼합된 신탁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대할 때 우리는 이 선언들이 언약의 복을 선언하는데 이바지하는지 아니면 언약의 저주를 선언하는데 이바지하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V. 결론(CONCLUSION)

우리는 선지서에 선지자들의 많은 종류의 선언이 들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선지자들은 역사적 설명과 하나님과의 의사 소통 외에도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백성에게 선언하는 데 보냈다. 우리가 선지서 안에 나오는 다양한 장르들에 익숙해지는 일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며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거기에 들어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지서 안에 역사적 설명을 하는 내러티브, 하나님과의 의사 소통, 그리고 백성과의 의사 소통이 들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선지서를 읽으며

-
3. 대답: (1:2 하-4) (1:2 하)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1:3)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사랑에게 붙였느니라 (1:4)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4. 함축적 의미 제시: (1:5)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이러한 장르 명칭들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그것들이 그 당대에 의미했던 것과 오늘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먼 길을 잘 갈 수 있다.